■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제목 :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성경: 로마서 8장 18-30절

18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9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0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24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

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롬8:18-30)

오늘의 주제는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관한 것이다.

18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이란 인생의 가장 큰 만족이다. 기독교는 인생의 만족을 추구하는 종교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만족을 추구하도록 만드셨다. (사실은 만물을 움직이시는 동력이 만족이다. 만족을 향한 추진력을 생명력이라 할 수 있다. 이 온 우주는 바로 이 생명력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영적인 힘이고, 물리적인 측정은 역시 불가능하다.)

세상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만족들이 있는데, 어떤 만족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보고, 듣고, 맡고, 맛보고, 씹고, 대접받고, 공짜일 경우), 어떤 만족들은 단계가 있기도 하고(특히 운동의 경우가 그렇다.), 어떤 만족들은 쉽게 얻기도 하고(생리적인 것들, 하품, 먹고 자고 배설하는 것), 어떤 만족들은 어렵게 얻는가 하면(연구, 공부, 돈버는 것-대신 한번 얻기 시작하면 계속적이다.), 어떤 만족들은 희생을 요구하기도 하고(대부분의 가치있는 것들은 희생을 요구한다), 어떤 만족들은 오랜 기간을 요구하고도 하고(심지어 천국은 죽어야한다.), 어떤 만족들은 대리만족이나(아쉬움을 채우기 위해서), 무지개 만족인 경우도 있다.(가장 비극적인 만족, 기대감이 주는 만족만 남는다.)

사람의 일거수일투족도 사실 만족을 향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신앙생활은 만족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신앙생활은 만족을 얻기 위한 최고의 윤리가 담겨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최고에는 항상 함정과 유혹과 거짓이 도사리

고 있다는 점이다.(유사종교)

함정과 유혹과 거짓은 어쩔 수 없이 복잡하다.
그러나 진리는 단순하고 간결하다.

만족에 관한 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아이는 스스로 만족을 얻지 못한다. 어른은 스스로 만족을 얻을 줄 안다.

만족에 관한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는? 더 크고 좋고 영원한 가치를 얻으려는 것과 그것을 얻으려고 희생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의 차이다.

지혜로운 어른은 그래서 그 절차를 소중히 여기며, 가장 지혜로운 어른은 그 절차까지도 즐길 줄 아는 자이다.(왜냐면 그 절차를 즐길 수 없다면, 결국 절차를 밟아가면서 지치고 낙심하기 때문이다.) 노력할 줄 알고 수고를 하며, 땀을 흘리며, 탐구하고, 깨어 있으며,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배우며,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며, 기다리며, 인내하고 참으며, 고난의 시기를 지난 다음에 수확의 기쁨을 누린다.

물론 그러는 중에도 여전히 단순하고 생리적인 만족은 계속된다.

지혜와 어리석음을 구별하는 방법은?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 먹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만족의 법칙. 만족에는 항상성과 반복성과 주기성이 있다. 즉, 반복적으로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항상 그런 방식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 (우주적)

그래서 만족을 위한 습관이 대단히 중요하다. 만족을 얻는 습관을 잘 들이는 것이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기도 한다.
인생은 운명지워졌기 보다는 습관지워졌다.

만약 인생이 궤도를 이탈하였다고 생각되면? 빨리 습관을 고쳐야 한다. (마치 우주에서 우주선이 방향을 트는 것과 같다.)
만약 계절이 바뀌었다고 생각되면? 빨리 습관을 고쳐야 한다. (마치 우주가 새로운 세대로 진입하는 것과 같다.)

습관을 고치는 것은 몸을 고치는 것이다. 몸을 고치는 것은 호르몬을 고치는 것이고, 호르몬을 고치는 것은 신념체계를 고치는 것이고, 신념체계를 고치는 것은 영혼을 고치는 것이다.
습관이 잘 바뀌지 않는 이유는? 삶 가운데 거짓이 개입되었다는 뜻이다. 호르몬이 거짓에 길들여지면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 습관이 잘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 신념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모든 인생의 파이널 목적은? 영광을 얻는 것이다.
영광은 만족이 꽃이다.
영광은 하나님의 것.
그러므로 인생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임하면? 모든 만물이 비로소 만족을 얻는다.

> 21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
> 22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것.

모든 만물이 탄식할 뿐 아니라, 우리도 탄식한다. 왜냐면 아직 만족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23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예수를 믿는 우리까지도; 여전히 아직은 영광을 얻지 못하고 있으므로;세상에 영광을 얻고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지만...)

속으로 탄식하여(영혼이 탄식하며 갈망한다는 뜻)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양자됨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몸의 속량은 부활체를 의미한다.)

24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천국에 관한 소망을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얻었다는 뜻.

-이미 통장에 입금은 되었으나, 아직 인출을 되지 않았다는 뜻.

-그러나 그 통장만이라도 위력이 있는 까닭은 소망이 진짜이기 때문이다.

25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성도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왜냐면 이미와 아직 때문. 아직.

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다림을 두려워 말라. 성령께서 도우신다.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 까지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사랑하시니까.

27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으로 순간 모면이 가능하게 됨.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핵심은 사랑이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만 진실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끌어당기는 힘이다.

> 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모범을 보여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 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롬8:18-30)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심. 구원과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말함.

-그 플랜대로 우리를 부르심.

-의롭다 하심. 성령을 주심으로 미리 의롭게 하심.

-성령께서 우리를 다각도로 도우시면서 예수를 모범삼아 영광을 얻게 하심.

<찬양예배>

주제 : 제목 : 말씀 :